

2022학년도 자유교양대학 동계 워크숍

- Liberal Education을 위한 공통교양 교과목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2023.01.17.(화)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목 차

1. 2022학년도 자유교양대학 동계 워크숍 일정	5
2. 자유교양대학 공통교양 교과목 개발 보고	
「디지털리터러시 기반 SW·AI 교육 커리큘럼 설계」	7
▶ 발표 : 서응교 교수	
왜 「세계지성사의이해」인가-기대효과를 중심으로-	11
▶ 발표 : 김주언 교수	
「Co-curriculum 진로교과-비교과 협력 방안」	27
▶ 발표 : 오은주 교수	
「명저읽기」 교과목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	37
▶ 발표 : 김정녀 교수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 계획(안)」	55
▶ 발표 : 차민영 교수	
「대학 글쓰기」의 현황과 발전 방향	71
▶ 발표 : 배개화 교수	
「한국지성사의이해」교과목 진행상황과 운영 방안	87
▶ 발표 : 엄기표 교수	
「제2외국어교과」 운영 현황	93
▶ 발표 : 유영식 교수	
「수리추론」 교과목 운영 방안	99
▶ 발표 : 고희정 교수	
3. 종합토론	107
▶ 사회 : 박성만 교수	

2022학년도 자유교양대학 동계 워크숍 일정

1. 일시 : 2023년 1월 17일(화) 10:00~13:00
2. 장소 : 범정관 505호(대회의실)
3. 주제 : Liberal Education을 위한 공통교양 교과목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4. 일정

시 간	내용
09:50-10:00	[등 록]
10:00-10:10	◆ [개회식] · 사 회 : 박희영 교수 · 개회사 : 양은창 학장
10:20-10:30	◆ 『디지털리터러시 기반 SW·AI 교육 커리큘럼 설계』 · 발표자 : 서응교 교수
10:30-10:40	◆ 왜 『세계지성사의이해』인가-기대효과를 중심으로- · 발표자 : 김주연 교수
10:40-10:50	◆ 『Co-curriculum 진로교과-비교과 협력 방안』 · 발표자 : 오은주 교수
10:50-11:00	[중간 휴식]
11:00-11:10	◆ 『명저읽기』 교과목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 · 발표자 : 김정녀 교수
11:10-11:20	◆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 계획(안)』 · 발표자 : 차민영 교수
11:20-11:30	◆ 『대학 글쓰기』의 현황과 발전 방향 · 발표자 : 배개화 교수
11:30-11:40	◆ 『한국지성사의이해』 교과목 진행 상황과 운영 방안 · 발표자 : 엄기표 교수
11:40-11:50	[휴 식]
11:50-12:40	◆ [종합토론] · 사 회 : 박성만 교수
12:40-12:50	◆ [폐 회 사] · 발표자 : 엄기표 부학장

자유교양대학

공통교양 교과목 개발보고 1

『디지털리터러시 기반 SW·AI 교육 커리큘럼 설계』

▶ 발표자 : 서응교 교수

『디지털리터러시 기반 SW·AI 교육 커리큘럼 설계』

(워크숍 현장에서 직접 발표)

자유교양대학

공통교양 교과목 개발보고 2

왜 『세계지성사의 이해』인가-기대효과를 중심으로

▶ 발표자 : 김주언 교수

왜 <세계 지성사의 이해>인가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김주언

1. 교양 교육의 상시적 위기

- 1)무용론(통념)
- “나는 대학에서 이른바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양 과목은 백화점이나 구민 회관 문화센터에서나 하는 것이다. 대학은 교양을 쌓는 곳이 아니다. 대학은 전문 교육을 하는 곳이다.”(최재천)
- 우리는 B급인가?

2)전공 교수의 책임시수 해결 도구

- 안정적으로 폐강의 위험 없이 부족한 책임시수를 보충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의 선택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
- 따라서 교양은 단지 전공 과목의
- Low version
- Soft version
- Sweet version이거나
- 혹은 전공이 되지 못하는 전공 미달 상식/지식의 15주 조합물
- 교양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가

3)학생들의 태도

- 어렵고 뻑세면 용서하지 않겠다, 교양 주제에...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대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결해 주면 그만인가. 그러면 이 강좌시장에는 무엇이 살아남고 득세할 것인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염려는 없는 것인가?

★교양 필수는 교육소비자의 자유시장 경쟁논리에 맡겨둘 수 없는 과목

<세계 지성사의 이해> 구성

목차

- I 부 1. 공자 2. 주희 3. 정약용
- II 부 4. 플라톤 5. 아리스토텔레스
- III 부 6. 뉴턴 7. 루소 8. 칸트 9. 괴테
- IV 부 10. 다윈 11. 마르크스 12. 니체
- V 부 13. 프로이트 14. 보봐르 15. 칼 세이건

기본 방향

- *잘 씌어진 이야기 + 쉽게 휘발되지 않고 기억되는 사상.
- *지성사(intellectual history) 대표 지성의 사유/사상을 삶의 이야기, 시대의 이야기로 스토리텔링하며 접근하는 방식.
- *관념/이데올로기라는 추출물 대신에 그것이 생산되는 과정과 토양을 주목하는 방식.
- *맥락이 없는 이론적 구조물은 살아 있는 삶의 문제의식으로 착근되지 않고, 상상력을 자극하지도 않음.
- *따라서 딱딱하고 건조한 관념사도 또 그렇다고 단지 생애사도 아님.

교육의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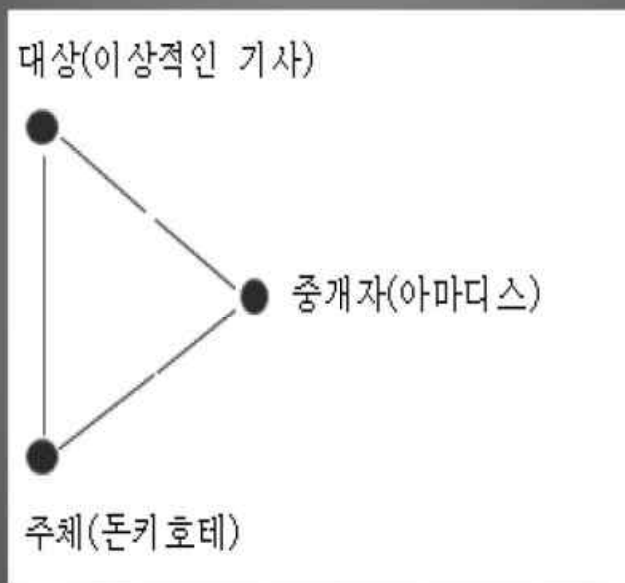
1. 위대한 지적 유산의 상속자 만들기 효과

- “지난 3,000년을 설명할 수 없는 이는 하루하루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게 되리라.”(괴테)
- 조상이 아무리 부자여도 상속받지 못하면 거지, 문명화된 야만의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가
- 두 종류의 자식이 있다
 - 1)후레자식. 부모를 매장시키는 자
 - 2)유산을 상속받는 자

2. 위대한 친구들과 함께 살아 가기 효과

-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아도 친구가 없으면 불행하다)
- ‘시카고 플랜’이라는 게 있다
- 허친스 총장의 (읽기) 교육 혁명, 교양교육 혁명
- (강의평가: “where fun comes to die”)
- 시카고 대학은 현재 97명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1위 대학)
- 허친스의 모델: 존 스튜어트 밀의 독서법(필부도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다는)
- 그중 하나가 ‘역할 모델’을 고전에서 찾는다는 것

역할 모델은 왜 중요한가



- 지라르는 욕망을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생각하여 인간의 모든 욕망은 삼각형 이론에 의해 설명된다고 말한다. 삼각형 이론에서 욕망은 주체와 대상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중개자로 인해 삼각형 구도를 그린다. 인간은 무엇을 욕망하지만 그것을 혼자서 할 수 없고, 욕망의 대상을 지시하는 제3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체는 이 제3자라는 중개자를 모방함으로써 대상을 욕망하게 되는 간접화 현상을 겪는다.

세계 지성의 모델 효과

- 아마디스 대신에
- 공자, 주희, 정약용,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뉴턴, 루소, 칸트, 괴테, 다윈,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보봐르, 칼 세이건이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 이들이 지지 않는 15개의 태양으로 ▶ 마음의 벚으로
▶ 평생 친구로 살아 있다면 어떨가?(有朋自遠...)

3. 응용력/창의력에 도전한다

- 응용력이란 무엇인가

:교차와 비교의 차원 이동에서 가능한 세계. 골몰하는 세계(이론바 전공) 하나만을 알아서는 응용력이 생기지 않는다.

-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의사-창의력, 고도화된 응용력, 궁극적인 목표, 기업의 최우선 요구사항이기도

응용력과 창의력의 바탕

-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이 세계 지성사의 콘텐츠

- (달리 말하자면) 학제성, 융합성, 통합성, 융복합성이 근간

- 따라서 전공 미달이 아니라, 전공 칸막이 교육이 가질 수 없는 비전, 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뷰가 아니다



세계 지성사의 파노라마 뷰, 통창 뷰



홍승수의 '핑계'

- “번역을 마치고 저는 칼 세이건이라는 인물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의 지식의 폭과 깊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핑계를 댈 데는 있었어요. 어디인 줄 아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저하고 같이 희생된 영혼들이십니다. 여기 다 문과, 이과 분리 교육 받으신 분들이죠? 치명적이에요. 문과, 이과 분리 교육, 이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걸 때려 부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 이게 문제입니다.”

김주언의 경우

- ‘현대문학’ 혹은 ‘현대소설’이 전공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
:다른 것은 잘 몰라도 된다.

김주언의 대학 동기들은 지금 그 분리 전공 교육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가?

친구1:광고기획사 대표. 친구2:일용직 근로자. 친구3:중고차 딜러. 친구4:시청 공무원(아주대 홍성기 교수의 논문 참고)

누구를 위한 전공 분리 교육인가? (‘전공’을 살려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 세부 전공 교수?)

리버럴 아츠가 '오래된 미래'인 이유

• 3학 + 4과

핵심은 +

1학, 2학, 3학, 1과, 2과... 낱낱의 개별성이 아니라

○보편 지성의 추구

응용력 / 창의력의 실제1

- <세계 지성사의 이해>라는 교과목의 근본 정체성 자체가 학제성이다. 학제성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문과학·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연계 가능성이고, 이를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좁히자면 과연 자연과학 안에 인문(사회)과학의 문제의식을 포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통합할 수 있고, 포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무책임한 장담이나 허언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 보겠다. <세계 지성사의 이해> 목차를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 이 목차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3대 분과학문의 유력 지성들을 단순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 분야는 뉴턴과 다윈, 그리고 칼 세이건이 있는데 이들은 인류지성사라는 큰 견지에서 볼 때 한결같이 '과학'이라는 특정 제도권 분과학문의 대가가 아니다.

응용력/ 창의력의 실제2

-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시장의 작용 원리가 뉴턴이 발견한 중력의 작용 법칙과 마찬가지로 경제 활동이 저절로 계속된다고 봤는데, 이는 뉴턴의 제1법칙(관성 법칙)에 서 처럼 일단 경제적인 힘이 운동에 들어가면 외부의 힘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운동하는 원리인데, 다윈이 말로 학제적 아젠다의 총화 같은 인물이다. 오늘날 다윈을 다윈화되고 철학사에서도 우리 학자들의 공동 작업인 <21세기 다윈 혁명>이라는 저작을 읽은 사람이라 하면 예외 없이, 그의 인문학적 식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의 <창백한 푸른 점>에 나오는 천문학이야말로 인성 교육의 학문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과학이 윤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학의 언어가 가치 지향의 인문학의 언어와 달리 단지 가치 중립적 언어라는 막스 베버의 견해로부터 멀리 떨어져 진화된 모습이다. 바로 이 진화의 지점이 인문과 학(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학제적 연대와 통합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응용력/ 창의력의 실제3

- I 부 1. 공자 2. 주희 3. 정약용
- II 부 4. 플라톤 5. 아리스토텔레스
- III 부 6. 뉴턴 7. 루소 8. 칸트 9. 괴테
- IV 부 10. 다윈 11. 마르크스 12. 니체
- V 부 13. 프로이트 14. 보봐르 15. 칼 세이건
- 시험문제 ★7X11X14는? ★★5X10X12는?

에드워드 윌슨의 주장

- ■ “나는 학문의 커다란 가지들 간의 인과적 연결을 회피하는 ‘교양 과목’이 대학의 핵심 교과 과정으로 자리 잡아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 ■ “만일 자연과학이 인문/사회과학과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면, 고등 교육에서 교양 과목은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이다. 그 정도를 성취하기 위한 시도만이라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이다.”
- ■ “인간 조건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방법들을 한데 묶는 것뿐이지만, 그것들 사이의 인식론적 연계를 만드는 데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와 같은 통합이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증거?

-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니다.”
- 여기 하나의 증거에 도전하는 사례를 주목해 주시라.

이 기획에 대한 평가

- 1. 爲人設講이 아니다
- 학문의 보편성이 아니라 특정인의 자리를 염두에 둔 위인설강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끼리끼리 패거리 문화의 악습일 뿐.
- 우리는 교양교육학의 내적 논리(정치 논리가 아니라)에 따라 임용되었는가?
- 교육의 설계는 당장 현재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도 안 된다.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는가)
- 한국 1위의 대학도 아시아 1위를 위해 현재를 개혁한다.

2. 한국연구재단의 평가(객관적 평가)

- 지원, 계속 지원.
- 기관장 명의의 확약서가 제출된 상태

3.국내 우수 대학 필진들의 참여와 평가

- 서울대에서 단국대까지(콘텐츠 수월성에 대한 방증이 아닐런지)
- 누가 임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
- 교과목명 표절도 경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태양이 우리 날개의 밀랍을 녹이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높이 날 수 있는지 알아 보자.”(천체물리학자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

자유교양대학

공통교양 교과목 개발보고 3

『Co-curriculum 진로교과-비교과 협력방안』

▶ 발표자 : 오은주 교수



CONTENTS

1. Co-Curriculum 운영 개요
2. 진로교과 Co-Curriculum 운영방안
3. 진로교과 Co-Curriculum 활성화 방안

1. Co-Curriculum 운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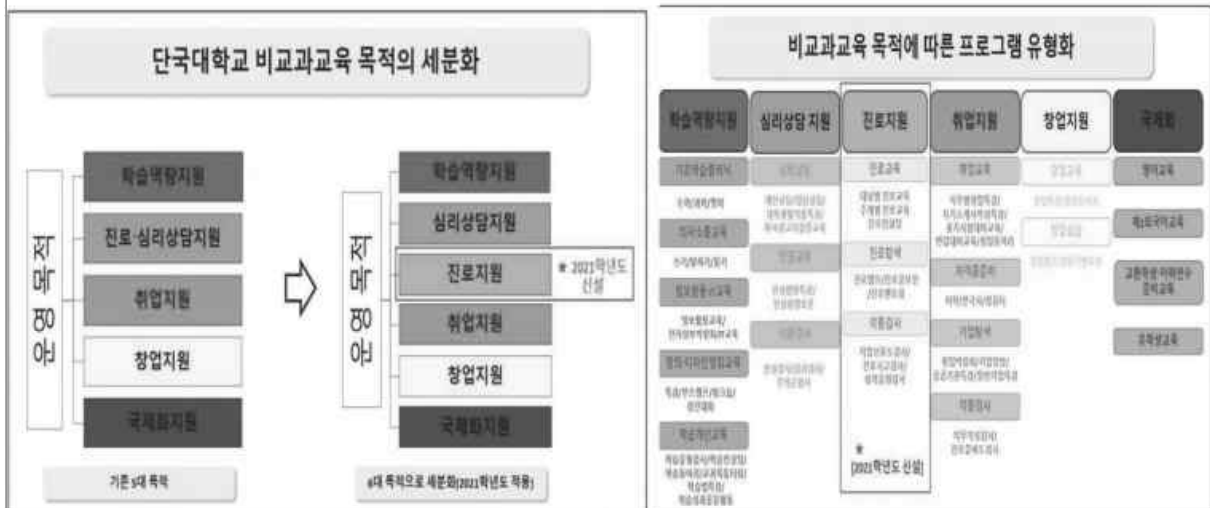
■ Co-Curriculum 운영

교과 교육과 비교과 교육을 별개가 아니라 긴밀히 연계된 개념으로 인식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 Co-Curriculum의 운영 목적



■ 비교과교육 목적에 따른 프로그램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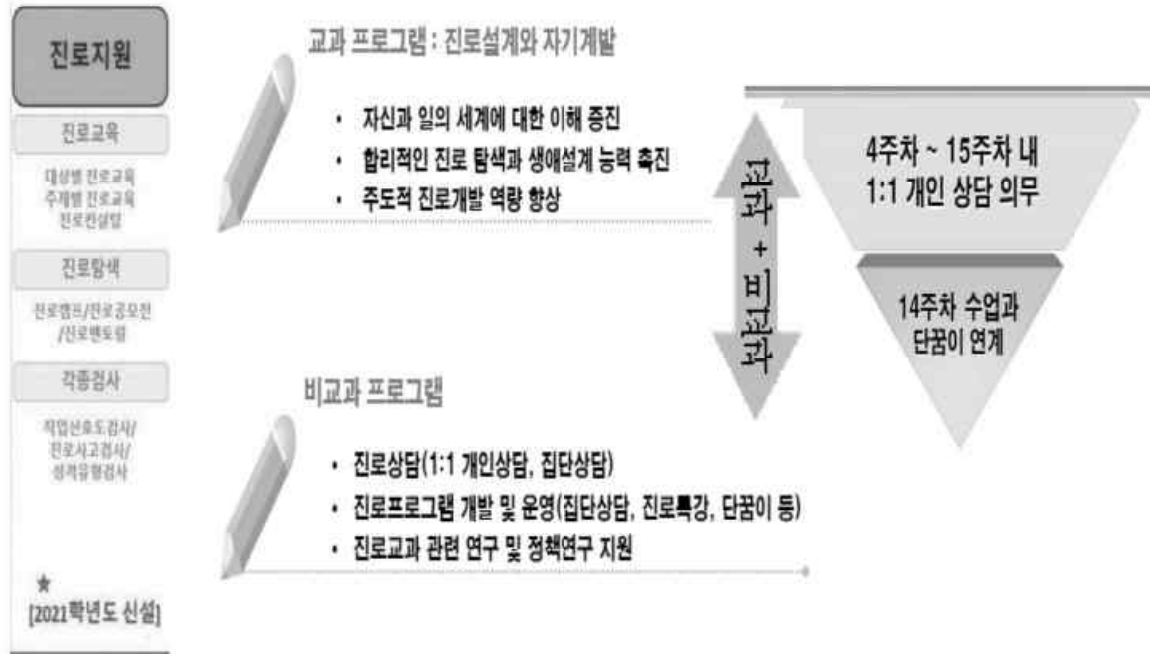


[그림 4] 단국대학교 비교과교육 목적의 세분화

[그림 5] 비교과교육 목적에 따른 프로그램 유형화

출처 : 미래교육혁신원 교육성과평가센터(2022)

2. 진로교과 Co-Curriculum 운영방안



1) 연간 진로교과 운영 일정 (2022년 기준)

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진로 TA 모집 및 교육												
1:1 개인상담 운영												
진로집단 프로그램 운영												
단꿈이 경진대회												
프로그램개발 및 진로교과 관련연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진로 TA 교육 및 운영 현황

- 목 적 : 1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된 '진로설계와 자기계발' 수업과 연계하여 학생 개인에 대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탐색, 대학생활 설계를 돕기 위한 상담자 교육 및 수업지원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함
- 운영방법 : 수강생 모두 30분 이상의 개별상담 실시 및 수업지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죽전	14명 (29개 분반)	16명 (32개 분반)	16명 (31개 분반)	15명 (31개 분반)	13명 (31개 분반)	11명 (31개 분반)
천안	11명 (25개 분반)	13명 (30개 분반)	14명 (25개 분반)	14명 (30개 분반)	14명 (30개 분반)	11명 (29개 분반)

3) 진로교과 연계 1:1 진로 상담 운영현황

- 목 적 : '진로설계와 자기계발' 수업과 더불어 1:1로 진행되고 있는 진로상담은 학생 개인별로 고민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대학생활 적응 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 개발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운영방법 : (수업담당 교수 + 진로 TA)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진로설계와 자기계발' 수강생 모두 1:1로 개인 상담을 진행함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죽전	1,344명	1,315명	1,079명	1,142명	1,054명	1,119명
천안	1,151명	1,002명	1,110명	881명	1,013명	900- 1,000명(예상)

4) 진로 상담 주요 성과(1)

[표] 2022-1학기 진로상담 효과성 (N=156)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응답비율 (%)		
			보통 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1.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	4.62	.562	3.8%	30.8%	65.4%
2.진로고민(개인 호소 문제)을 해결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4.56	.593	5.1%	34.0%	60.9%
3.'진로상황에 대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기대가 생겼다.	4.58	.580	4.5%	33.3%	62.2%
총계	4.58	.578			

- 진로상담은 (대학생활 적응, 전공 문제 등)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됨
- 자기이해를 통해 진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진로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됨
- 진로를 더 구체적으로 탐색할 기회가 제공됨
- 상담 과정 중 추천해준 내용을 통해 대외활동을 시작함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김)
- 자기 자신과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생김

4) 진로 상담 주요 성과(2)

[표] 진로상담 학생 의견조사 내용 (2022-1 학기 예시)

구분	의견 내용
상담에 대한 요구 및 만족도	• 상담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더군요 • 상담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되면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제까지 대학에서의 활동 중에 가장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거 같고,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 코로나로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인터넷을 통해 진행한 것도 매우 도움이 되고 좋았습니다.
도움/고민	• 진로 고민과 평소 가지고 있던 고민에 대해 상담하며 얻은 피드백이 도움이 되었다. • 여러 피드백을 받으면서 나의 다양한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생각보다 정말 많은 정보와 해결방안을 얻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상담을 통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문제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번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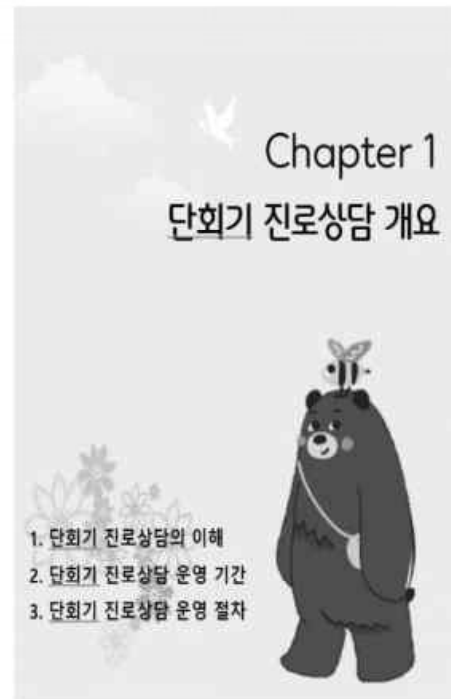
5) 단회기 진로상담 매뉴얼 개발

목 차

- 1 단회기 진로상담 개요
- 2 단회기 진로상담 준비 단계
- 3 단회기 진로상담 과정과 전략
- 4 진로문제 유형별 상담 가이드
- 5 상담자 준비행동 점검 Checklist

참고문헌

부록



6) 진로교과 연계 단꿈이 경진대회 운영 현황

- 목 적 : 자신의 비전을 청중과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할 기회 제공하고, 신입생의 꿈을 향한 도전정신 고취 및 프레젠테이션 스킬 강화를 통한 진로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운영방법 : 해당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경진대회 예선 → 경진대회 본선 → 멘토 특강
- 경진대회 본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시상함
-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2학기 12월경에 진행함

※ 2022년 운영현황 결과

- 운영일시 : 2022.12.07.(수)
- 경진대회 참여 인원 : 약 120명
- 단꿈이 공모전 : 예선 60명, 본선 9명

3. 진로교과 Co-Curriculum 활성화 방안

1) 개선점

- [성과관리와 영웅스토리 관리] 진로설계와 자기계발 수업과 연계하여 1:1 개별상담을 매년 2,000명 이상 진행하고 있으나 시스템상 비교과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성과 관리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영웅스토리에도 비교과 프로그램과 진로상담이 따로 관리 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합 관리가 필요함
- [역량기반 진로지원] 역량기반 학습자 맞춤형 진로지원을 위해서는 핵심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진로상담을 지원하거나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진로교과실 운영] 학기별로 진로교과 담당 교수 및 진로 TA 25~30명 과 상담 학생 및 상담 대기 학생이 진로교과실을 활용하고 있으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의 한계가 있음

2) 발전방향

- 비교과 연계 상담관리시스템 정비 (영웅스토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
- 혁신지원 사업으로 매년 초 진로상담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 (예산에 운영비, TA 교육비, 설문지 쿠폰 지급 :학생들에게 마일리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진로상담 성과 연구 (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최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도출 필요)

자유교양대학

공통교양 교과목 개발보고 4

『명저읽기』 교과목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 발표자 : 김정녀 교수

<명저읽기> 교과목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

- 주관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 발표 : 김정녀(명저읽기 교과 PD)

목차

1. <명저읽기> 교과목의 현황
2. <명저읽기> 수업의 실제
3. 과제와 발전 방향

01. <명저읽기> 교과목의 현황

1. <명저읽기> 교과목의 현황



교과목 개요

- <명저읽기>는 인문, 사회, 자연 분야의 다양한 고전을 교재로 선정하여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교과목
- 읽기, 발표와 토론, 피드백, 글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 교수자는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읽기 방법을 안내함. 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읽고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책에서 발견한 사고의 단서를 우리 사회 문제와 연계하여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명저읽기> 교과목의 교과 목표임



학습 목표

- 정해진 다양한 교재를 읽고 이해하고 쓰고 토론하는 학습활동을 통해 종합 리터러시 능력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고전을 통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얻도록 함
 1. 정해진 책을 교육적 도움을 통해 스스로 읽는다.
 2. 책의 핵심 내용과 사상을 이해한다.
 3.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해석을 말과 글로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4. 책을 읽고 오늘의 현실이나 인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한다.
 5. 문학과 역사, 과학과 철학 등의 인접 학문을 연결지어 이해한다.



역량 기준 학습 목표 및 평가 방법

인재상	핵심역량	비중	학습목표	수행준거	평가 방법
혁신	문제해결	40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해볼 문제들을 뽑아보고 그 중에서 다루고 싶은 문제, 핵심적인 문제를 설정한다.	-주요 내용과 저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 -현재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쟁점을 찾아낼 수 있다.	문제제시형 글쓰기
혁신	전문지식	30	-강의를 통해 배경과 단계별 심화 내용을 이해한다.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배경지식이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강의수강 여부
능동	의사소통	30	-수업을 통해 소그룹 활동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눈다 -읽기를 바탕으로 여러 과제를 수행한다. -발표하고 토론한다.	-책의 내용을 발제하거나 낭독하여 새롭게 깨달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문제 설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발표와 토론



핵심 역량(문제해결능력) 교육 내용

- 문제해결능력 함양이란 단지 기술적인 측면을 뜻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 포괄한다. 개인적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까지 그리고 자연과학과 관련한 이해를 통해서도 삶의 다층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전방위적으로 얻을 수 있다. 고전 교육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이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책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 명저읽기(인문) 중 문학작품에서는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이러한 문제 제기는 현대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포괄한다.
 - 명저읽기(사회)에서는 저자의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그것이 현재에는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 명저읽기(자연)에서는 자연과학 이론에 대한 지식에 한정하지 않고 그것의 사회적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부역량(전문지식/의사소통능력) 교육 내용

- 전문지식능력 함양
 - 책과 관련된 다양한 배경 지식 제공: 학생들이 스스로 책 읽기를 통해 전문지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과정
 - 학생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전문지식이 획득되도록 함
- 의사소통능력 함양
 - 대면 활동: 낭독, 발제문 발표, 토의와 토론, 서평 발표 등의 활동
 - 비대면 활동: 게시판을 활용해 댓글을 달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 활용
 - 교수자의 피드백 외에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

02. <명저읽기> 수업의 실제

2. <명저읽기> 수업의 실제



<명저읽기: 인문>

• 대상 텍스트

- 저자: 신영복
- 서명: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
- 출판사: 돌베개
- 출판일: 2004년 12월
- 전체 페이지: 515쪽
- 책값: 18,000원





교과 목표

- <명저읽기:인문>은 선정된 명저를 읽고 함께 토론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 성찰하고 지혜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강좌에서는 신영복의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를 통독하고자 한다. 책을 읽으면서 찾아낸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이다.
- <학습목표>
 -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한다.
 -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해 성찰하고 발견한 것을 에세이로 써서 발표하고 토론한다.



수업 방식

- 각 장의 주요 논점 정리-조별 발표
- 소감문 발표 및 의견 나누기
- 논제(문제 제기)의 발견과 토론
- 에세이 발표/토론



평가 방식

- 책의 내용 및 맥락 파악을 위한 과제(소감문): 35%
- 각 장의 주요 논점 정리(조별 발표): 10%
- 에세이 발표/토론: 발표+토론+참여도 10+5+5=20%
- 기말 과제: 주어진 논제에 대한 학술에세이 작성 20%
- 출석: 15% (결석 1회 -1점, 지각 1회 -0.5점, 8회 이상 결석은 낙제) - 교학 행정팀에서 승인한 유고 결석 신청서 제출 시 출석 인정



신영복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의 내용

- 동양고전에 대한 신영복 선생의 독해와 그 방법을 제시한 책
- 저자가 대학에서 강의했던 고전 강독 내용을 정리하여 출판한 것
- 11권의 동양고전 : 『시경(詩經)』, 『서경(書經)』, 『초사(楚辭)』, 『주역(周易)』, 『논어(論語)』, 『맹자(孟子)』, 『노자(老子)』, 『장자(莊子)』, 『묵자(墨子)』, 『순자(荀子)』, 『한비자(韓非子)』 등 주로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의 제자백가 사상을 대상으로 함
- 우리 시대는 변화와 개혁을 절실히 요구하는 시대임. 춘추전국시대 역시 사회에 대한 근본적 담론이 가장 활발히 개진된 시기임. 사회경제적 변동기에 출현한 제자백가 사상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임
-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있었던 사상적 ‘도전과 응전’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음



신영복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의 화두와 관점

• 책의 화두와 관점: 관계론(關係論)

- 21세기 새로운 문명과 사회 구성 원리로서 '관계론'을 제안
- 서구 문명의 구성 원리인 '존재론'은 개별적 존재를 세계의 기본 단위로 인식하고 그 개별적 존재에 실체성(實體性)을 부여하는 반면, 동양의 사회 구성 원리인 '관계론'은 '개별적 존재가 존재의 궁극적 형식이 아니라는 세계관
- 관계론적 사고를 통해 동양고전을 재조명하는 이유: 서구 문명의 구성 원리에 대한 반성으로서 동양적 구성 원리에 주목하자는 것

• 고전을 읽는 이유

- 사회와 인간에 대한 성찰과 모색이 중심이 되어야 함
- 당대 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전 독법 전 과정에 관철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고전을 통해 얻을 것은 없다
- '과거를 재조명하고 그것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 고전 독법의 생명이라는 의미



신영복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에서 제기한 과제

• 자본주의 체제와 관계론

- 자본주의 체제가 양산하는 물질의 낭비와 인간 소외, 인간관계의 황폐화를 보다 근본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명사적 과제'
- 자본주의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인식 체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관계론'의 관점에서 사회를 재구성해야 함

• 분단과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화(和)'의 논리

-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비단 우리 민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체제 극복의 문제임
- 공존과 평화의 논리로 통일 과정을 이끌어가려면 '동(同)'의 논리가 아닌 '화(和)'의 논리로 전환해야 함
- '관계론'과 '화(和)'의 논리'는 자본주의 문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미래를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근본 담론으로 기능할 수 있음



수업 활동 자료: 소감문 예시

「순자」를 읽고 떠오른 몇 가지 단상

32222113 백은빈

1.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나를 반성하다

순자는 인간의 능동적 참여를 천명합니다. 천(天)이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자의 천론(天論)은 당시 생산력의 발전, 그리고 천문학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는 주장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상이란 크게 보아 사회적 성과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하늘에는 사시의 운행이 있고, 땅에는 자원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다스림이 있다. 이 다스림을 능참(能參)이라고 한다. 사람이 (천지와 동등한 자격으로 나란히) 참여할 수 있는 소지를 버리고, 천지와 동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기를 버린다는 것은 환성(慙)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실천적 노력이라는 것이지요. 순자의 ‘능참’은 ‘실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영복, 『강의』(돌베개, 2004), p.408.

인간의 실천은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다. 한 사람의 실천과 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나 또한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한 발자국 내딛는 실천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실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두려움과 귀찮음이 생각이 났다. 우선 두려움은 자신이 해보지 않았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경우라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거나 만나지 못했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마주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을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실천하려던 일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하 생략)



수업 활동 자료: 조별 발표 예시

제7장 「장자」의 소요유

6조 이재혁, 이희은, 임규빈, 전재원, 정다원

<목차>

1. 텍스트 소개
2. 주요 논점 정리
3. 인상적인 대목과 그 이유
4. 생각해볼 점
5. 질의 및 응답

생각해볼 점 1. 장자의 체계에 따르면, 기계가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의 삶의 '실현'을 막는다고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기계는 인간의 노동 가치를 깎는 존재인가? 노동의 효율성을 높여 가치를 더하는 존재인가?

생각해볼 점 2. 장자는 우리가 '우물'에 갇혀 있다 했는데, 이 시대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우물'은 무엇일까?



수업 활동 자료: 학술 에세이

장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 인간과 AI

32222208 소프트웨어학과 서찬영

1. 서론: 기계

현재의 많은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해야 기계가 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을지 연구해 오고 있다. '사람처럼'이라는 말에는 그 외적인 디자인이 사람의 육체와 닮아 있다는 뜻도 있을 것이고 그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사람과 닮아 있다는 뜻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처럼'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엔지니어들이 연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 미래에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기계가 완성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사람은 겉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사람과 그 기계를 구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자. 많은 SF 영화나 소설에서 말한 것처럼 그 기계는 인간 옆에 진짜 인간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을 돕는 존재로서 있을 수도 있다. 현재에는 그런 기계가 없기에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그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기계를 기계라고 부를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인간 사이에서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기계를 인간이라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즉 무엇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아니면 기계를 인간이라 부르겠는가? 그럴 수 없다. 기계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듯 인간도 기계가 아니다. 이제부터 나는 인간과 AI는 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2. 본론 1: AI, 그리고 인간

2.1. 함수

수학에서 함수란 수와 수가 연결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컴퓨터과학에서 함수란 하나의 동작을 가리킨다. 하나의 함수에 하나의 동작이 대응되고 프로그램은 특정 상황에 적절한 함수를 실행한다. 즉 함수란 프로그램을 이루는 것이며, 프로그램조차도 하나의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이 존재해 왔지만, 이것들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어떤 함수를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느냐가 달라져서 그런 것이다. AI 또한 그렇다. 이것들이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의 작동 방식은 인간과 닮아있지 않다. 그저 인간처럼 생각한다고 보이게 할 뿐이다. (이하 생략)



강의평가에서 확인된 학습 성과 및 과제

- **수업의 장점:** 강의식이 아닌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 좋았다는 의견, 과제에 대한 교수의 피드백이 구체적이어서 좋았다는 의견도 많았음. 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좋았고, 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며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음
- **개선이 필요한 점:** 매주 챕터별로 독서를 하고 소감문을 작성하였는데, 과제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음. 수업 중 조별 발표, 소감문 발표, 에세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발표가 많고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음, 책 내용이 어렵고 편향적이라는 의견도 보임
- **과제:** 1. 책을 꼼꼼히 읽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고, 조별 토론을 하면서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나 과제의 양, 발표와 토론의 방식과 횟수를 적절히 조율할 필요가 있음. 2.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다양한 관점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의미 있으나 일부 학생들의 참여도가 저조함.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 있음

03. 과제와 발전 방향

3. 과제와 발전 방향



강의평가의 실제(긍정 평가)

- 접해 보지 못한 책을 접할 수 있었다, 이해한 경험이 보람 있다. 새로운 학문을 배워서 좋았다.
-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잘 해준다. 피드백이 구체적이다.
-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좋았다, 창의력 향상, 글쓰기 능력 향상
- 면담과 수업자료 제공
- 과제를 통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
- 수업 관리가 잘 된다는 점
- 교수자의 열정
- 강의의 질이 높다. 강의력에 대한 만족도
-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교수자의 태도
- 전반부의 강의 평가 요구 사항 개선
- 학생 스스로 주도적이고 깊이 있는 해석에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 팀플과 토론이 재미있었다.
- 독서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짐. 책에 대한 재미와 흥미도 향상
-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과 경험



강의평가의 실제(부정 평가)

- 수업 방식이 지루하다.
-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 방해된다.
- 지적인 자극제 역할 부족
- 조별 과제, 조별 활동 방식과 횟수 조정 필요
- 책이 어렵다.
-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수업이라 진입 장벽 낮추기 위한 노력 필요
- 강의 속도 조절 필요, 다시보기를 할 수 없는 대면 수업이라서 속도를 못 따라가면 수업에 흥미를 잃는 경향이 발견
- 적정 크기의 강의실,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는 발표 환경 개선
- 교수자의 주장이 강하다.
- 메타버스 과제가 힘들었다.



강의평가의 내용 분석

- 교수자들의 열성적인 강의와 피드백, 발표와 토론이 잘 이루어지면 독서에 대한 흥미와 완독의 성취감도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음. 학생들 스스로 읽어가면서 성취감을 획득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교수자는 강의의 강도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교수자들이 전반적으로 이 수업의 기본 취지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오랫동안 비대면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대면수업의 긴 시간이 부담스럽게 작용. 수업이 지루하다거나 다른 학생들의 집중도 흐트러짐이 수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거나 조별 활동을 다양화하고 횟수도 조정해야 하는 등의 과제는 대면 수업의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한 고민이 요구된다는 점을 드러냄



<명저읽기>의 발전 방향1: 교육 내용

- <명저읽기>는 인문, 사회, 자연 분야의 다양한 책읽기를 통해 문제해결능력, 전문지식과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의 기초는 같다. 다만 이러한 핵심 역량 향상을 위해 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줄 교육 콘텐츠 개발과 활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해 작가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통해 확장적 사고 유도, 다른 책에 대한 정보 연결 및 동영상 콘텐츠 제작과 같은 활동이 요구되기도 함. 문답식 해제를 통해 질문하기의 방법을 제안하거나 가장 인상적인 문구를 통해 책 한 권을 이해하는 교육 콘텐츠 제작도 고려되어야 함



<명저읽기>의 발전 방향2: 교수학습법(1)

- <명저읽기>의 인문, 사회, 자연의 기본적인 교육 내용의 기초는 같으나 책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텍스트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법 개발 필요
- 교수자들이 제안한 교수학습법을 적용하고 성과 분석을 하여 효율적인 교수학습법 개발 필요
- 전문적 워크숍의 확대를 통해 좋은 교수학습법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명저읽기>의 발전 방향2: 교수학습법(2)

- 주역량인 문제해결능력을 위해서는 책읽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 교수자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 활용 방안 모색
- 대면 수업에서는 현장 질의를 통한 피드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문제해결역량 함양을 위해 책의 내용과 연계된 사회 문제를 선별하여 논제화하는 실습 및 문제해결 중심형 과제(학술 에세이) 수행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과 합리적인 문제를 해결 방법을 단계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음



<명저읽기>의 발전 방향2: 교수학습법(3)

- 부역량인 전문지식능력을 위해 이론적인 설명과 이를 학생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 과정 필요
- 학생들이 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소감문 작성, 퀴즈, 발제, 발표, 질의 응답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데, 이 과정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전문지식을 학생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필요함
- 어려운 책의 경우 퀴즈, 발제에서 그치고 토론으로 이어지기 힘든 점이 있지만 힌트가 많지 않더라도 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문학작품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읽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다음 단계에서의 토론이 유의미함



<명저읽기>의 발전 방향 2: 교수학습법(4)

- 부역량인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 40명 수강생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다각적인 소통 방식을 활용하여 소통이 즐겁게 잘 이루어진다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함. 개별 과제와 개별 발표, 조별 활동과 조별 토론을 적절히 안배하여 수업을 구성해야 함



<명저읽기>의 발전 방향 3: 대학 차원

- 학습 효과 증진을 위해 정원 축소 방안 검토: 30명 정도가 적정
- 토론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강의실 지원
- 교수법 개발 및 공유를 위한 지원 필요
- 학기 중에는 비교과(브라운백 렉처, 사페레 아우데, 독서토론 대회, 우수 글쓰기 대회 등)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방학 중 운영되는 독서토론 세미나 등이 있으면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
- <명저읽기:자연>이 확대되어야 함



마치며

- 학부 1학년 학생들이 고전을 통독해본 경험은 지속적인 독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 읽은 책을 바탕으로 교수와 자신의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토론하고,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를 종합해 자신의 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역시 종합적 사유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 학생들의 독서와 토론 능력, 종합적 사고력을 키워 주기 위한 교수자, 학생, 대학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

질의 및 응답

자유교양대학

공통교양 교과목 개발보고 5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 계획(안)』

▶ 발표자 : 차민영 교수

DKU 자유교양대학

영어센터
(Dankook Essential English Center)

개설 및 운영 계획안



목 차

- 메타버스 영어교육 프로그램 신설 - 도서관 연계
- 아동 영어지도사 자격증과정 신설 - 평생교육원 연계
- DKU-영어원어강의(EMI) for Dynamic Dankook 2027 - 교수학습센터 연계



“글로벌 기업 한국 유치 위해 영어 소통능력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해야”... 무협 보고서,
2022.09.25

“글로벌 기업들, 영어소통 등 탓에 한국 진출 소극적”
무협 보고서... 글로벌 기업 300개사 대상 설문 “거점 후보지 1순위는 한국” 비중 고작 3.3%

“영어 소통 어려워... ‘한국 거점’ 적극적인 글로벌 기업 3%뿐

“글로벌 기업들, 한국 좋지만 해외거점 내기엔 ‘글쎄’”

| 아시아 지역본부 거점 후보국별 비즈니스 환경 지표 평가 (n=300)

순위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상위 3개 요인	1	치안 및 안보	영어소통	영어소통	치안 및 안보
	2	의료 및 보험	물류·교통·통신 인프라	치안 및 안보	물류·교통·통신 인프라
	3	교육환경	전문 인력 고용	물류·교통·통신 인프라	의료 및 보험 거시경제 안정성*
하위 3개 요인	1	인건비	정치 안정성	인건비	영어소통
	2	영어소통	코로나19 방역조치	현지 시장규모·성장성	인건비
	3	조세 여건	인건비	조세 여건	조세 여건

주 : *표시된 일본의 '의료 및 보험'과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은 공동 3위(상위)

문항 : 현재 한국/홍콩/싱가포르/일본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표별로 평가해주시시오 (1점 : 매우 불만족, 5점 : 매우 만족)

영어교육의 현실

[JTBC] 2015-12-30

수능영어 절대평가 전환에...영어는 찬밥, '국·수' 인기

2018학년도부터 수능 영어에 절대평가를 도입

영어 점수가 90점을 넘으면 모두 1등급

국어나 수학으로 몰림

영어의 내신 경쟁이 과열

[연합뉴스] 2022-02-14

서울대 '고급영어' 수강 급감...수능 절대평가 영향 분석

"영어 실력이 상위권이어야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의 수강생이 약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미만으로 급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데 따른 영향"

"2007~2013년 입학생 중 36.7%는 고급 영어 과목을 수강, 2018~2020년 입학생의 경우 16.2%, 반면 기초 영어 수강생 비율은 같은 기간에 8.3%에서 28.8%"

대학원 진학, 연구중심대학, 대학의 국제화(영어원어강의 활성화)에 심각한 타격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광범위한 학문간 융복합, 창의성 강조

교과 간의 경계를 허무는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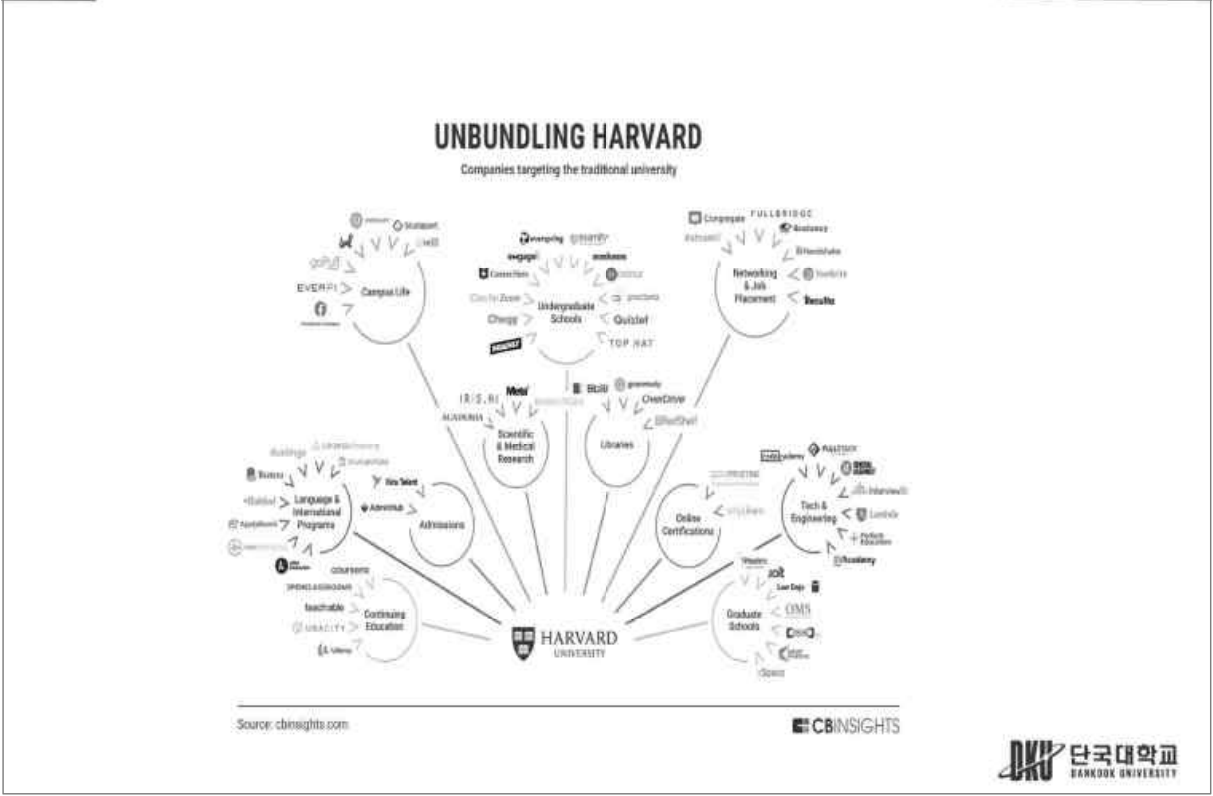
교사에게도 수업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 디지털 리터러시, 융복합수업, 맞춤형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 등 강조

모든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초,중,고 수업에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XR, 메타버스 플랫폼 등이 활용되고, 이에 익숙한 학생들은 고등교육 현장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음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

COVID-19 이후의 영어교육: 에듀-테크(Edu-Tech)



에듀테크(Edu-tech)와 영어교육



디지털 네이티브 MZ세대

밀레니얼 세대(1981~96년생)와 Z 세대(1997~2010년생)는 디지털 세대라는 공통점으로 MZ 세대로 표현

특히, Z 세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디지털 생활을 영위

언제, 어디에서든 나와 취향, 관심사가 같은 친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 공부도, 게임도 친구들과 온라인에서 만나 함께



MZ세대의 DKU 영어교육 방향



영어는 학습의 대상이 아닌 '의사소통의 도구'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시험'이 아닌 '놀이와 의사소통의 장'

'강요'가 아닌 '스며드는' 학습의 장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교육

에듀테크 기업을 '발굴', '협업' → 대학영어교육 + 에듀테크놀로지 특성화

Prep으로 기초영어실력 키우고, Elite로 우수학생 배출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영어교육 가이드라인 필요
e.g. 대학원 진학? 취업?

Metaverse Library 활용사례



스탠포드 대학교 세컨드 라이프 플랫폼

■스탠포드 대학교: 2009년 세컨드 라이프 플랫폼에 가상 기록저장소를 만들어 현실에서는 서비스하지 않는 스탠포드 대학교 미공개 자료 열람
https://youtu.be/3_TWmth3MdE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소재'

■2021.4.
"메타버스시대의 도서관운영"
국립도서관이슈페이퍼 발간
■개념, 사례, 활용전략



그 외 대학교

■충북대학교(제페토 플랫폼),
■동아대학교 한림도서관(웹 플랫폼)

메타버스 대학도서관 사례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한림대학교

메타버스 영어교육 시사점

가상의 디지털 정보를 통해 시각적, 입체적으로 학습

- 학습자 스스로가 체험을 통해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음
- 몰입된 상태에서 읽고, 쓰고, 말하는 등의 상호작용 경험을 할 수 있음

교수학습의 공간적, 물리적 한계성을 극복

- 온라인 화상회의 도구, 협력도구(줌, 구글 및 등)로 온라인수업 진행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성찰하고 개선

- 학습 로그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화 된 방향으로 학습 촉진 지원
→ 중도탈락 방지

“내가 원하는 나” “내가 원하는 공간, 사회적
환경” “미지의 세계 몰입감” “탐험, 성취, 게임을 통한
표현욕구는 창조욕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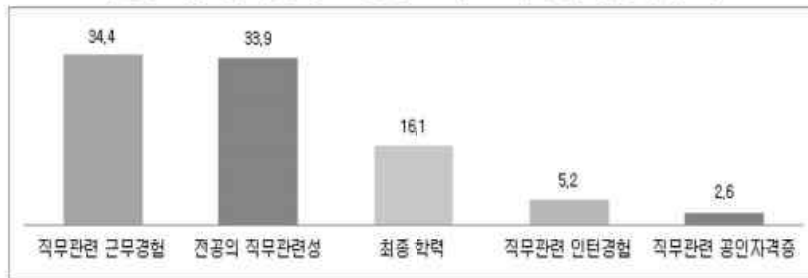
Prep/Elite English Course와 메타버스 도서관



MZ 구직자의 채용 조건: 직무경험 = 자격증

기업 채용담당자들 "구직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무 관련 경험"

< 신입 채용 단계별 중요 평가요소 (n=500, 1순위 응답, 단위: %) >



2022.7.22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발표

아동영어지도사 자격증 과정

아동 TESOL 과정

*TESOL: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어린이 영어교육 육성을 목표, 직무관련 경험, 다양한 진로

영어유치원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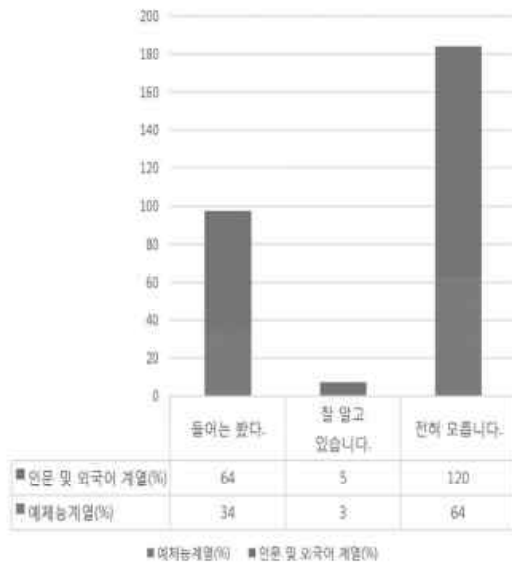
방과후 영어교사

ESL유초등영어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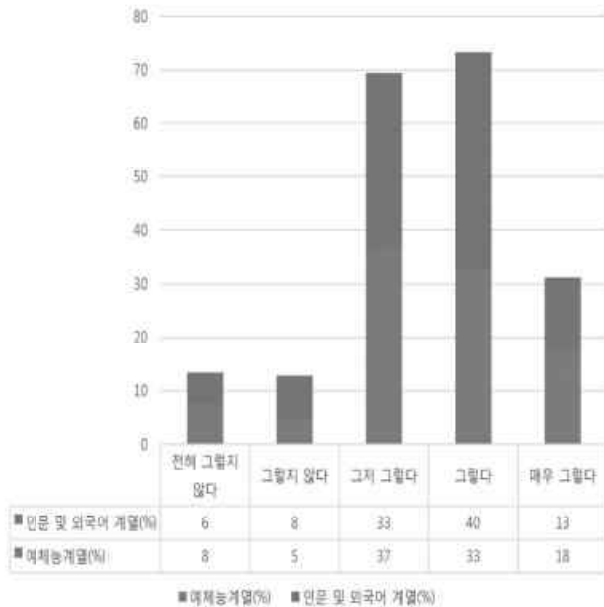
어린이 영어 공부방 및
영어 교습소 운영

홈스쿨링

1. 나는 영어지도사 자격증(TESOL, 영어독서지도사, 파닉스지도사, 등)에 대해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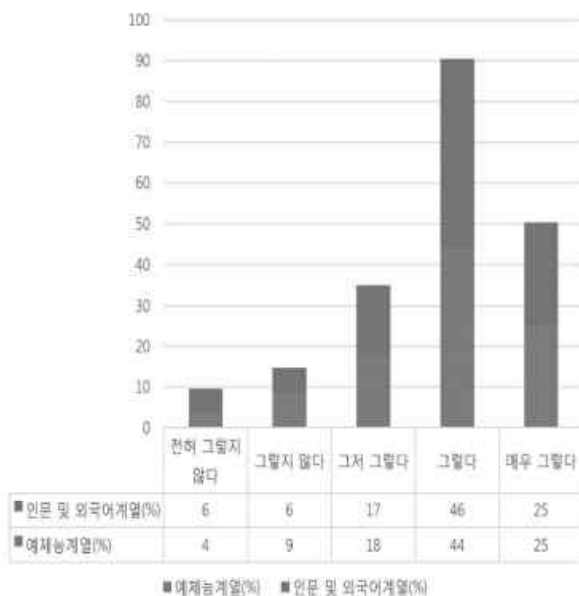


2. 나는 내 전공분야를 영어로 수업하는데 관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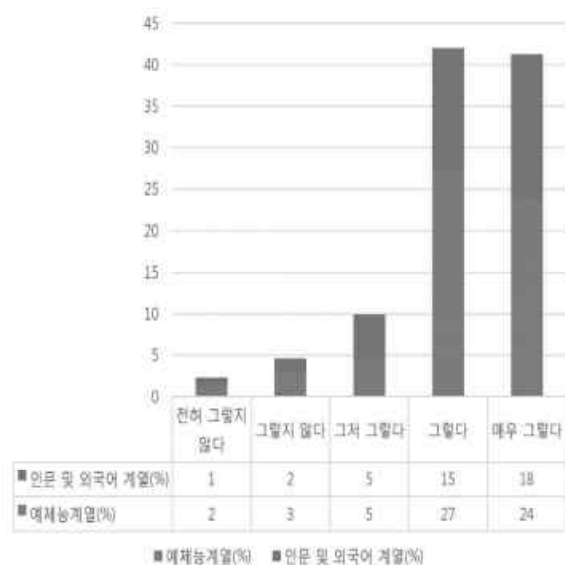


설문 참여자 총132명(인문 및 외국어 53명, 예체능 79명)

3. 내가 취업 또는 창업준비를 한다면 영어 지도사 자격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내 전공분야에서 영어 수업 가능을 증명하는 영어지도사 자격증이 있다면 취업의 폭이 더 넓어질 것 같다.



설문 참여자 총132명(인문 및 외국어 53명, 예체능 79명)

DKU 아동영어지도사 자격증 운영방안

DKU 영어교육 노하우와 에듀테크 전문 기업과 협업 (e.g. YBMNET)

영어에 관심있는 모든 재학생, 졸업생, 지역사회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

영어과는 물론 **스포츠, 예술대 학생들에게 적극 장려**

DKU-YBM 수료증, 비교과 학점 인정 등

Job Board를 통한 취창업처 연계 기능

평생교육원을 통한 지역사회와 대학자원의 공유, 상생 도모

위 프로그램 이수자들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e.g.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영어캠프, 어린이 영어스피치 대회, 영어유치원 개원 등)



DKU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

DKU & YBM 연계방안

• 자격증 및 수료증 발급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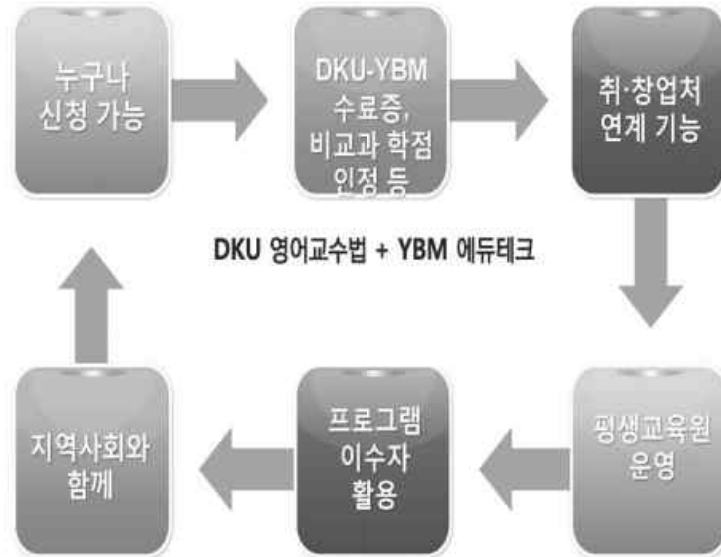
1) YBM 동영상 과정 수료

2) Micro-teaching: 동영상 과정을 마친 수료자들은 자신의 수업교안을 만들어 직접 샘플수업을 하고 평가(Pass/Fail)받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온/오프라인 가능)

3) Practicum: 단국대학교 유치원 또는 천안시내 유치원, 영어학원 등과 연계해서 동영상 과정을 마친 수료자들에게 2주간(4회) 실습 기회제공 (천안시 이외 수강생은 거주지 근처 기간 실습 후 증빙자료 제출)

DKU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

DKU 영어지도사 자격증 운영방안



영어원어강의(EMI: English Medium Instruction) 현황

[단대신문] 2018-04-03

“글로벌 역량 위한 ‘영어 강의’ ...
실효성은 “글쎄” ”

정작 실제 수업에서 영어 사용 드물어...
이름뿐인 영어 강의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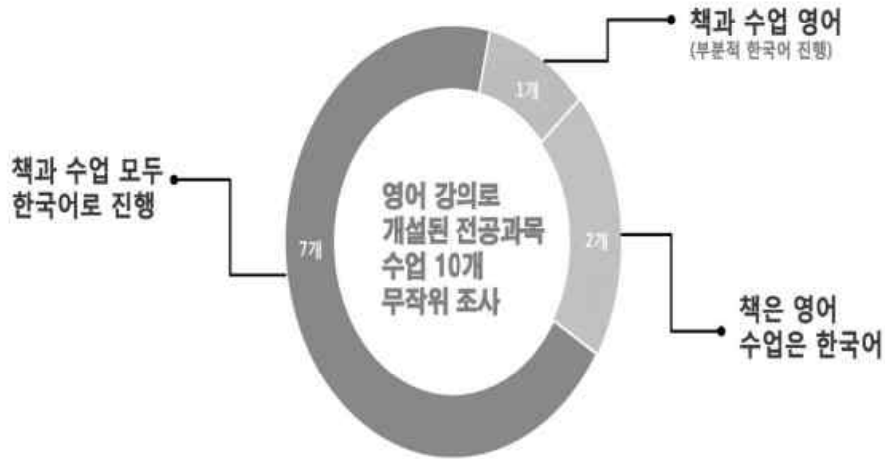
“많은 수업이 실제 영어로 진행되지 않아 불편, 특히 공학 수업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 불만을 토로하는 유학생 친구가 많다.”

“지금까지 영어 강의를 3~4개 수강했지만 수업이 영어로만 진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비 영어 강의와 비교해 수업과 시험 등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성적 기준은 완화돼 비교적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 후배들에게 영어 강의를 추천하기도 한다”

최00교수는 “어려운 공학을 영어로 진행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부가 설명 때문에 진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해외 미팅을 비롯한 국제적인 업무나 해외 취업 등에 유리하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어 강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대학에 늘어나는 유학생 수에 대비하고 캠퍼스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영어 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 대학은 ‘Dynamic Dankook 2027’ 4대 핵심과제를 통해 ‘국제화’를 캠퍼스 안에 융화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 많은 수의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DKU-EMI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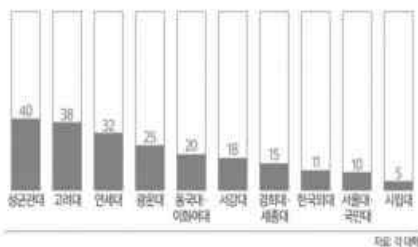
2018학년도 1학기, 영어 강의 수는 총 785개(죽전: 335개, 천안: 450개)

출처 : 단대신문(<http://dknews.dankook.ac.kr>)(단대신문 2018.04.03. 기사 내용 중)

타 대학 EMI 현황

대학들 부실한 강의 도마에 / 외국인 학생 유치 위해 강좌 늘려 / 서울 주요 대학 강의 5~40% 차지 / 한국어에 서툰 영어 섞어서 수업 / 유학생들 "내용 알아보기 힘들다"

서울시내 4년제 대학교 영어강의 비율 (단위: %, 2016년 학기 기준)
*전국대, 영리대, 실업대, 숭실대, 중앙대, 연방대, 홍익대 등 공개한 것



출처 : 세계일보

<https://m.segye.com/view/20190520511336>

- 세계 주요 대학평가기관의 순위 평가에 주요 대학이 목을 매는 현실
- 대학평가기관은 국제화 지표를 평가점수에 반영
 - 1) QS아시아대학평가: 외국인 유학생/교원학생 비율 점수 등으로 총점의 10%를 국제화영역 점수로 반영
 - 2) 타임스고등교육(THE) 대학평가: 대학내 외국인 학생 비율 점수 등이 총점의 7.5%에 반영
- "영어강의로 유학생을 끌어와야 각종 대학평가에서 높은 국제화점수를 받는다"는 인식
- "(영어강의 부실 문제는) 영어강의 수 늘리기에만 집중한 대학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 비율중심의 성급한 영어원어강의 정책, 성과내기 어려워, DKU-EMI 특성화전략 필요
- 낮은 영어의사소통능력 학생들의 학업성취도(GPA)에 부정적 영향 우려

DKU-EMI vs. 타 대학 EMI

- 영어원어강의에 대한 규정 미비
(교육업적 평가기준: 한 강좌당 +2)
- 2008년 2학기부터 시행
- 2010학년도 1학기 이후부터는 모든 학과가 의무적으로 2개 이상 영어원어강의 개설

이화여대: 모든 수업 내용을 영어로만 진행하는 수업만을 영어원어강의로 인정, 규정과 학칙(졸업인정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중앙대: 학칙에서 영어원어강의의 경우 강의계획서 작성을 비롯하여 교재, 과제, 시험문제를 한국인 교수가 모두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의라고 규정, 또한 강의평가 시 영어로 진행된 강의 및 교재, 과제, 시험문제 등 영어원어강의의 사실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DKU-EMI for *Dynamic Dankook* 2027

01	단계적 발전방안 설계 • 비물중심의 영어원어강의를 지양하고, 단계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 (e.g. 2022~2023, 2024~2025, 2026~2027) • e.g. 영어원어강의 3단계/5개년 발전계획: 비전, 목표, 전략 공표 • 대학, 교수, 학생 모든 구성원의 영어원어강의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 선행	구체적 규정 마련 • 영어원어강의의 구체적인 진행방법과 수업, 평가 가이드라인 필요 • 신임생 오리엔테이션이나 대학생활안내집, 교환연수안내서 등에도 영어원어강의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현황 공유 • 강제와 모니터링 → 장기적 관점에서 독려하고 지원	02
03	지속성,연계성 유지 • 학년별 영어원어강의 필수과목 지정, 지속성과 연계성 유지 중요	전공강의 영어 세미나, 콜로퀴움 등 활성화 • 전공강의 소규모 영어세미나 개설 • 한국인학생과 외국인유학생 영어콜로퀴움 활성화 독려	04
05	블렌디드 교수법 제안 • Flipped Learning 등	워크숍, 연구모임 활성화 • 매 학기 신입교수 영어강의 워크숍, 콜로퀴움 활성화 필요	06
07	공동교양영어 • 대학영어1, 2는 영어강의로 진행 • 초, 중, 고급 수준별 영어사용빈도를 조율	사후관리 컨설팅 •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협력 • 교수법(사례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학습법(어학프로그램 및 학습상담)	08

DKU-EMI for *Dynamic Dankook 2027*

- Curriculum or Course based on ESP
 - 특수목적 영어(ESP,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를
단과대별로 가르칠 수 있음
 - 공통교양영어, 영역별교양영어
 - 초급: TOEIC prep, 중급 & 고급: academic writing

자유교양대학

공통교양 교과목 개발보고 6

『대학 글쓰기』의 현황과 발전 방향

▶ 발표자 : 배개화 교수

〈대학 글쓰기〉의 현황과 발전방향

배개화
(천안국어과 PD)

목차

- I. 대학 글쓰기의 성격과 교육 목표
- II. 대학 글쓰기의 교육 내용 및 범위
- III. 대학 글쓰기의 핵심 역량 및 교육 방법
- IV. 대학 글쓰기의 성과와 개선요구사항
- V. 대학 글쓰기의 개선 방향

I. 대학글쓰기의 성격과 교육 목표

1. 대학 글쓰기의 성격

- 1) <대학 글쓰기>는 기존의 주제나 자신이 새롭게 설정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
- 2) <대학 글쓰기>는 지식과 정보의 비판적 수용과 관련된 글쓰기,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주장을 증거를 제시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논리적 글쓰기
- 3) <대학 글쓰기>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고 및 소통 능력을 기르는 글쓰기

20XX년

샘플 바둑글 텍스트

3

2.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표

- 1) 대학생의 학문 활동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구체적으로는 비판적, 창의적, 논리적 의사소통능력을 함양
- 2) 다양한 학문 활동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논증적 글쓰기를 반복적으로 훈련
- 3)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읽기 능력과 자료를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

20XX년

샘플 바둑글 텍스트

4

II. 대학글쓰기의 교육 내용 및 범위

1. 논증하기

- 1) 논증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거를 제시하면서 증명하는 것이다.
- 2) <대학 글쓰기>의 목적은 대학의 모든 학문 영역에서 공통으로 쓰는 글쓰기인 논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 3) 논증은 과학과 가짜 과학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 4) 칼 포퍼는 어떤 주장이 논증될 수 있으면 과학적 지식이며, 그렇지 않으면 예언이라고 주장

20XX년

샘플 바닥글 텍스트

5

2. 입증 책임의 중요성

- 1) 과학적 지식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논증을 통해서 참인 명제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함.



20XX년

샘플 바닥글 텍스트

6

2) 불완전한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종종 인류 전체에 피해를 미칠 수 있음

- 나치의 인종청소의 근거가 된 19세기 중반 조제프 아르튀르 고비노의 〈인종 불평등론(Essay on the Inequality of Human Races)〉
- 고비노는 백인종은 다른 모든 인종보다 우수하며, 백인종 가운데서도 최고의 문명을 이룩한 아리아 인종이 가장 우수하다고 주장
- 현재 인종주의는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이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주장임.

20XX년

샘플 바둑글 텍스트

7

3. 논쟁점의 인정

- 1) 주장(주제)은 찬성 혹은 반대가 갈리며, 그것이 옳거나 그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2) 주장은 단순한 사실이나 믿음에 대한 진술도 아니다.
- 3) 옳고 그름 혹은 참, 거짓을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주장이 될 수 있다.

20XX년

샘플 바둑글 텍스트

8

4. 소통가능성

- 1) 학생들은 믿을 만한 객관적인 논거를 최대한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
- 2)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이 틀릴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타인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함
- 3) 학생들은 내 주장의 논증과 상대 주장의 검증이 교차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결론을 찾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함.

20XX년

샘플 바둑글 텍스트

9

IV. 강의 평가를 통해 본 대학 글쓰기의 성과

1. 글쓰기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으며, 흥미가 생겼다.
- 논술문이나 소논문 쓰기 실력이 향상되었다.
- 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법 등을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2. 교수자의 피드백에 대한 높은 만족도

- 글쓰기 과제에 대한 “개별 피드백”이 상세히 이루어진 점에 대한 높은 만족도
- 교수자와 학생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대한 높은 만족도
- 교수자가 “친절하다”는 응답

20XX년

샘플 바둑글 텍스트

10

IV. 강의 평가를 통해 본 대학 글쓰기의 성과

3. 교수자의 수업 태도 및 방법에 대한 높은 만족도

- 다수의 분반에서 교수자가 열정적으로 수업했다는 응답이 있었다.
-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학생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했다.
- 분반에 따라서 발표자뿐만 아니라 청중들도 발표 논제에 관한 토론에 직접 참여한 것이 흥미가 있었다.
- 수업시간에 영상 및 참고자료를 보여주며 수업을 해서 수업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웠다.

IV. 강의 평가를 통해 본 대학 글쓰기의 성과

4. 과제 개수와 수준에 대한 불만

- 소수지만 과제가 많다는 응답이 있었다.
소수의 학생이 과제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극소수이긴 하나 논술문의 화제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 토론의 기초를 더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 극소수지만 중간고사를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III. 대학글쓰기의 핵심 역량 및 교육 방법

1. 대학글쓰기의 핵심 역량

D ³ 능동인재		D ³ 혁신인재		D ³ 헌신인재	
자기주도	의사소통	문제해결	전문지식	세계시민	협력헌신
부역량 (30%)	주역량 (40%)	부역량 (30%)	-	-	-

20XX년

샘플 바둑글 텍스트

13

1. 핵심 역량 평가결과

1) 2020년 2학기 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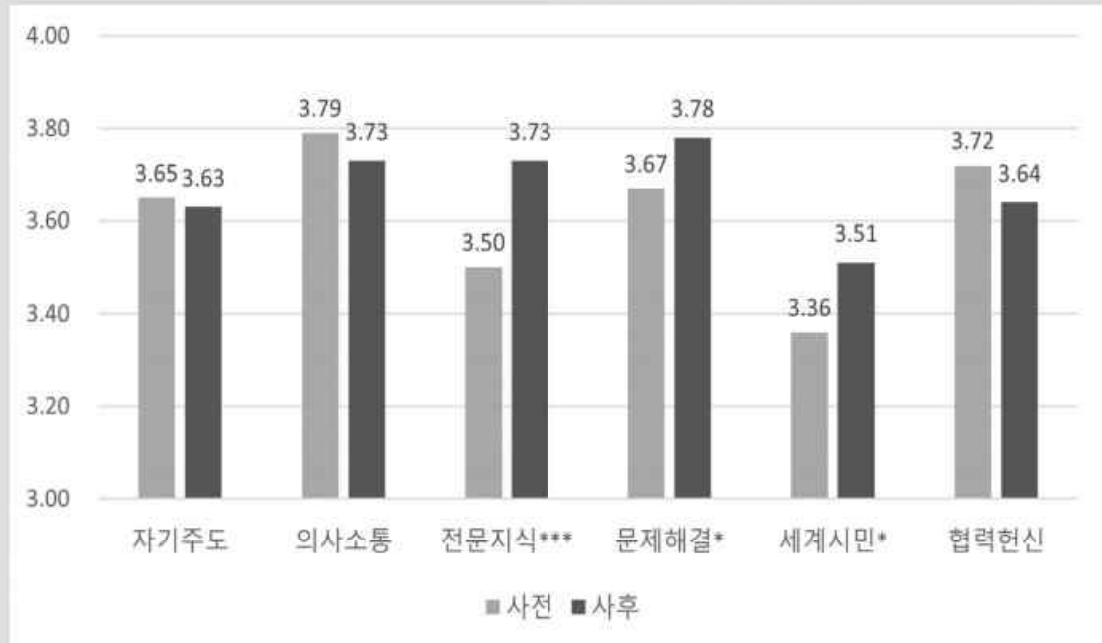
	D ³ 능동인재(평균값)		D ³ 혁신인재(평균값)		D ³ 헌신인재(평균값)	
	자기주도	의사소통	문제해결	전문지식	세계시민	협력헌신
1차	3.55	3.78	3.53	3.43	3.28	3.72
2차	3.60	3.76	3.63	3.60	3.26	3.69
증감	0.05	-0.02	0.11	0.17	-0.02	-0.03

20XX년

샘플 바둑글 텍스트

14

1) 2020년 2학기 천안



20XX년

샘플 바둑글 텍스트

15

1. 핵심 역량 평가결과

2) 2022학년도 2학기 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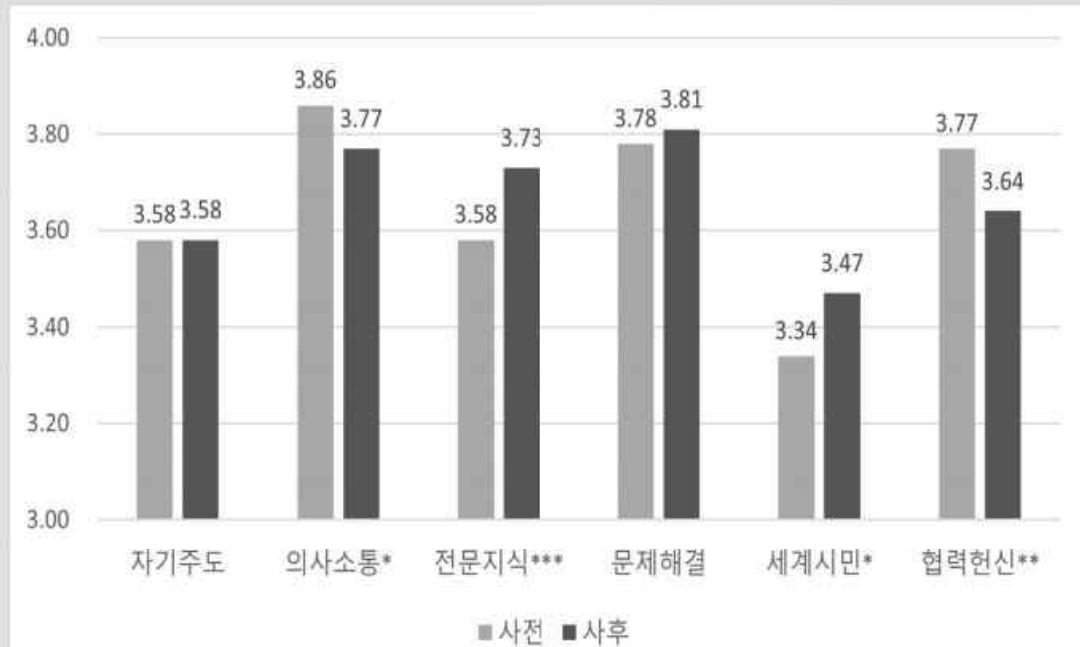
	D ³ 능동인재 (평균값)		D ³ 혁신인재 (평균값)		D ³ 헌신인재 (평균값)	
	자기주도	의사소통	전문지식	문제해결	세계시민	협력헌신
1차	3.58	3.86	3.58	3.78	3.34	3.77
2차	3.58	3.77	3.73	3.81	3.47	3.64
증감	0.00	-0.09	+0.15	+0.03	+0.13	-0.13

20XX년

샘플 바둑글 텍스트

16

2) 2022년 2학기 죽전



20XX년

샘플 바둑글 텍스트

17

1. 핵심 역량 평가결과

3) 2022학년도 2학기 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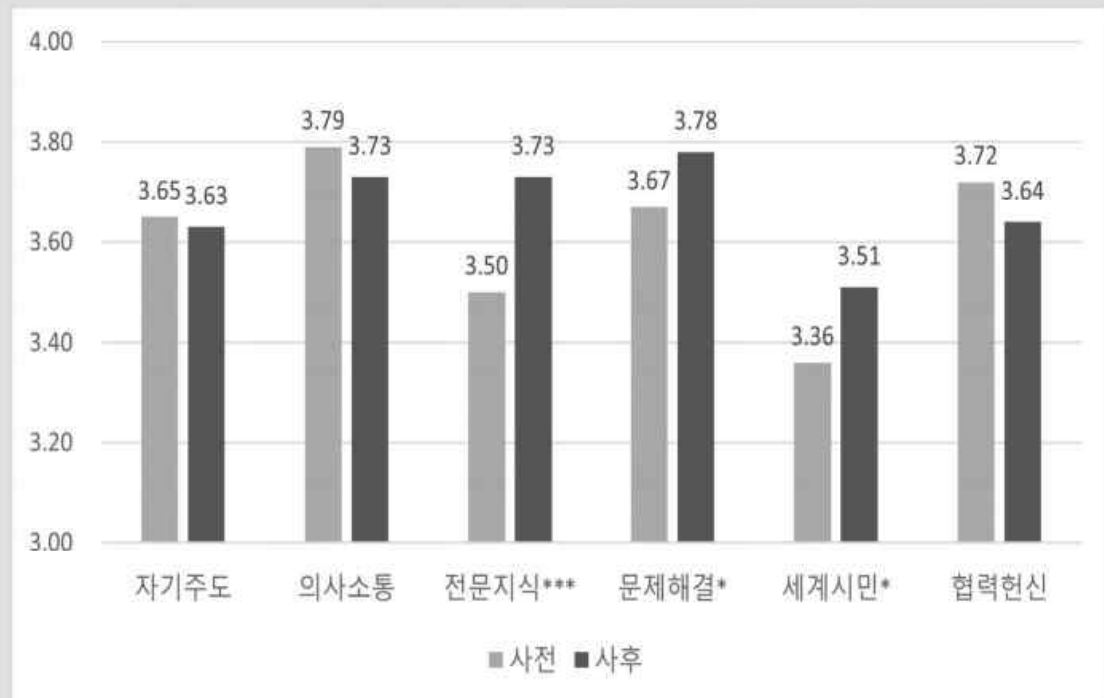
	D ³ 능동인재 (평균값)		D ³ 혁신인재 (평균값)		D ³ 헌신인재 (평균값)	
	자기주도	의사소통	전문지식	문제해결	세계시민	협력헌신
1차	3.65	3.79	3.50	3.67	3.36	3.72
2차	3.63	3.73	3.73	3.78	3.51	3.64
증감	-0.02	-0.06	+0.23	+0.11	+0.15	-0.08

20XX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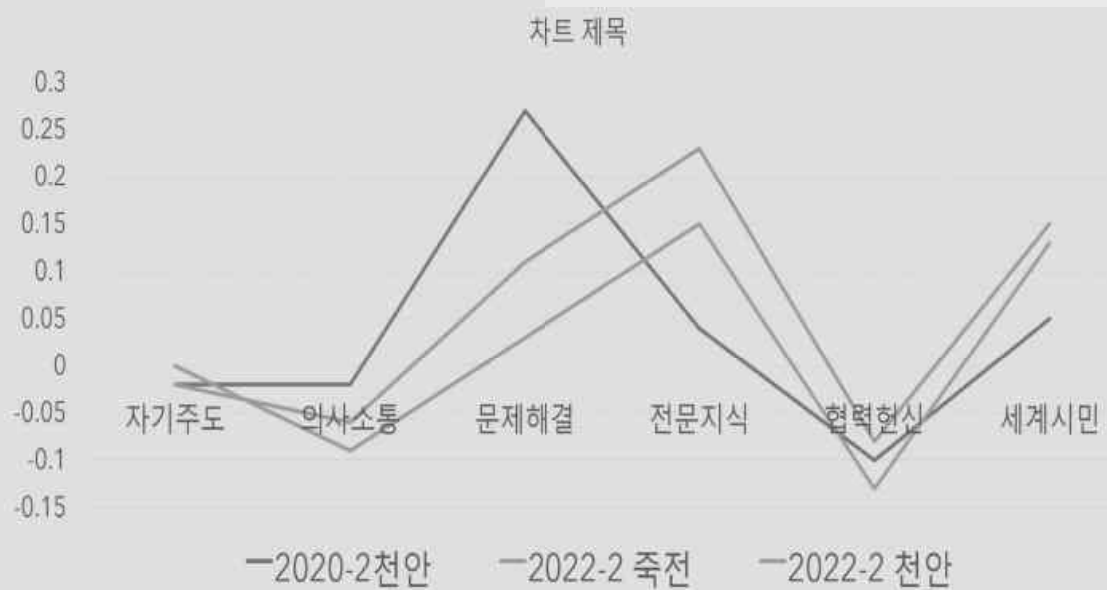
샘플 바둑글 텍스트

18

3) 2022년 2학기 천안



1-3) 주요 역량의 증감



2. 역량 진단의 경향성

1) (주역량) 의사소통역량의 감소

- 온라인 수업(2020)과 대면수업(2022)
- 죽전과 천안 (2022)
- 동일하게 사전 사후 역량 검사에서 감소

2) (부역량) 자기주도역량의 감소

- 온라인 수업(2020)과 대면수업(2022)
- 천안 (2022)
- 사전 사후 역량 검사에서 감소 (* 죽전(2022)은 동일)

20XX년

샘플 바둑글 텍스트

21

3) (부역량) 문제해결의 증가

- 온라인 수업(2020)과 대면수업(2022)
- 죽전과 천안 (2022)
- 동일하게 사전 사후 역량 검사에서 증가

4) 전문 지식의 증가

- 온라인 수업(2020)과 대면수업(2022)
- 죽전과 천안 (2022)
- 동일하게 사전 사후 역량 검사에서 증가

20XX년

샘플 바둑글 텍스트

22

2. 대학 글쓰기의 개선 방향

1) '의사소통역량'의 강화 방법

- 온라인 수업이나 대면 수업이나와 같은 수업 형식과는 무관한 응답 결과
- 학생 대부분이 강의 평가에서 논술문 혹은 소논문 쓰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
- 실제 학생들의 의사소통역량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움.
- '논술' '토론' 등이 글쓰기 말하기에 토대를 둔 '의사 소통'에 한 방법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
- 교수자들은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들에게 대학 글쓰기가 의사소통 영역에 속하며 논증, 토론 등이 모두 학술적인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
- 조별 혹은 개별 발표를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청중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경험 강화

20XX년

샘플 바둑글 텍스트

23

2) 자기 주도 역량의 향상

- 학생들이 논술이나 발표 토론의 화제를 자신이 찾아서 선정
- 자료 검색 방법 등을 교육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교육

3) 문제해결역량 강화

- 논술문 작성 및 토론의 효과 확인
- 학생들의 강의 평가와도 일치하는 응답

4) 전문 지식 역량 강화

- 논증학기를 학술적 글쓰기로 이해한 결과
- 논증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뜻

20XX년

샘플 바둑글 텍스트

24

5) 다양한 학습 도구의 활용

- 종이책 기반 수업이나 고전적 집필 고사에서 탈피할 필요성!!!
- 구글 클래스룸나 이러닝의 퀴즈로 집필 고사 대체
- 구글 클래스룸의 과제란을 활용하여 논술문 첨삭
- 구글 클래스룸이나 이러닝의 토론을 이용한 질의응답
- 교재 및 노트가 태블릿 PC로 대체 => 수업 자료를 PDF로 제공



감사합니다

자유교양대학

공통교양 교과목 개발보고 7

『한국지성사의이해』 교과목 진행상황과 운영방안

▶ 발표자 : 엄기표 교수

‘한국지성사의 이해’ 교과목 진행 상황과 운영방안

I. 교과목 개발 목적과 배경

- ① 현재 운영 중인 공통교양 ‘한국과세계 소통의역사’ 대체 교과목
- ② 역사학의 본질적 개념과 정의에 어울리는 교과목 개발
- ③ 역사와 역사학에서의 지성사 개념과 정의에 충실하고 부합하는 내용과 교재 개발
- ④ 역사교육의 본질에 부합하고, 민족사학 단국대학교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교과목 개발
- ⑤ 관행적인 교양으로서의 한국사 교육을 탈피하여, 대학 교양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교과목 개발
- ⑥ ‘한국지성사’를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대학 교양 교과목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 교재 개발 등

II. 교재 개발 추진 계획

구분	프로그램 개요	세부 추진계획
1차년도 (‘22년)	신규 교양 교과목 ‘한국지성사의 이해’ 교과목 개발에 따른 학문적 기반 마련	• 연구 성과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세부적인 계획 및 방향 설정 • 구성원 의견 수렴 및 연구진 구성 • 학술 심포지움 및 토론회 개최 • 피드백을 통한 새로운 추진 전략 수립
2차년도 (‘23년)	신규 교양 교과목 ‘한국지성사의 이해’ 교과목 개발에 따른 세부적인 교재 내용 및 집필진 구성	• 학생들의 역량 평가와 설문 조사 등을 통한 기초 자료 수집 및 분석 • 학술 심포지움 및 토론회 등을 통한 개념과 정의 확립 • 교재의 세부적인 내용과 목차 구성 완료 • 교재의 내용과 목차에 따른 집필진 구성 및 협의 (교재편찬위원회 구성) • 피드백을 통한 새로운 전략 수립 • 가능하면 2차년도에 사업 완료 예정(불가피할 경우 3차년도 사업 추진 예정)
3차년도 (‘24년)	신규 교양 교과목 ‘한국지성사의 이해’ 교재 편찬 완료 및 교과목 운영 계획 수립 완료	• 교재의 세부적인 내용 및 구성에 대한 심포지움 및 토론회 개최 • 교재의 수정 및 집필 완료 • 저작권 등 제반 사항 검토 • 교과목 운영 협의 및 강의 방법 등 협의 • 시범 강의를 통한 학생들의 반응과 피드백

Ⅲ. 교재 개발 추진 일정

- ① 2022년 7월 연구진 구성
- ② 2022년 7~8월 “한국지성사의 이해” 개념 정의 및 내용 구성
 - 지성사의 개념과 범위
 - 지성사 접근 방식 : 시대별, 주제별, 테마별, 인물별, 사상별 등 다양
 - 교재 개발 기본 원칙
 - = 지성사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2가지 중 하나를 선택
 - = 모든 대학에서 교양 교육의 한국지성사 교재로 개발
 - = 우리 학교를 위한 지성사 교육 교재 개발
 - 교수자(강의자) 분명, 교재 구성 및 내용 명확 제시 등
 - 집필 방법, 저작권 문제, 교재의 구성과 내용 전개 방식 등
- ③ 2022년 9월 목차와 집필진 구성
 - 총12장 구성, 2022년 8장 집필 완료, 2023년 4장 집필 완료
 - 2022년 8장(집필진 : 내부 6, 외부 2 / 연구진 : 내부 6, 외부 2)
 - 2023년 4장(집필진 : 내부 0, 외부 0 / 연구진 : 내부 0, 외부 0)
- ④ 2022년 9~10월 외부 전문가 3명 초청 특강(정병삼, 조한욱 명예교수 등)
- ⑤ 2022년 10월 교과 내용 수정 및 목차 확정
- ⑥ 2022년 10~12월 원고 작성
- ⑦ 2023년 1월 6일 학술 심포지움 및 토론회, 피드백
- ⑧ 2023년 2월 보고서 제작 및 제출

Ⅳ. ‘한국지성사의 이해’ 목차, 구성 및 내용, 집필자

장	시대	목차	구성 및 내용	집필자	비 고
1	개념	제1장 지성사란 무엇인가	1. 지성사의 정체성 2. 지성사의 역사 3. 지성사의 방법 4. 지성사의 적격성 5. 지성사의 현재와 미래	김상엽 (단국대)	
2	선사	제2장 도구의 사용과 사고의 탄생	1. 돌과 도구의 등장 2. 흙과 생활 도구의 발전 3. 금속의 활용과 기술 혁신 4. 농업과 인간 생활의 변화 5. 신앙과 무덤의 탄생 6. 도구의 발전과 사고의 탄생	엄기표 (단국대)	

장	시대	목차	구성 및 내용	집필자	비 고
3	삼국 남북국	제3장 새로운 사상의 도입과 확산	1. 천신신앙과 샤머니즘 2. 불교의 수용과 확산 3. 유교 정치이념의 수용 4. 신화적 인식에서 역사적 인식으로의 변화 5. 삼국시대 지성의 성립과 의의	전덕재 (단국대)	
4		제4장 지성의 융합과 심화	1. 새로운 (대승)불교 사상의 수용과 전개 2. 신구 불교사상의 회통과 화쟁사상 3. 실천적 신앙과 불교의 심화 4. 유학의 발전과 삼교일치론	최연식 (동국대)	
5	고려	제5장 불교 지성의 전개와 변용	1. 고려 사회와 불교 2. 불교사상의 통합 3. 고려대장경의 조성 4. 불교의 혁신 운동과 지눌 5. 불교의 위기	김철웅 (단국대)	
6		제6장 주자학의 도입과 확산	1. 유학에서 주자학으로 2. 초기 주자학자들 3. 성균관 중건과 주자학 활성화 4. 조선적 성리학의 대두	이정주 (단국대)	
7	조선	제7장 조선 성리학의 탄생	1. 조선초기 관학의 정비와 학술 활동 2. 경서(經書)의 구결(口訣)과 언해(諺解) 3. 16세기 성리학 연구와 이해의 심화 4. 『주자대전(朱子大全)』의 수용과 연구 5. 예학(禮學)의 발달과 예서 편찬	강문식 (숭실대)	
8		제8장 조선후기의 새로운 학풍	1. 주자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 2. 서학과 고증학의 도입 3. 생산기술의 개선 4. 상업의 발달과 지리 인식의 확대 5. 자아인식 강화와 국토방위	김문식 (단국대)	
9		제9장 동학과 농민운동			차년도 (2023년) 집필 예정
10	근현대	제10장 근대로 가는 지성			
11		제11장 독립운동과 독립 국가 건설론(민족주의 와 제국주의)			
12		제12장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형성			

V. 향후 계획 및 학교사 해결 방향

민족사학 단국대학교, 단국인과 지성	1. 단국대학교의 역사 2. 범정 장형 선생의 지성 3. 해당 조희재 여사의 지성 4. 중재 장충식 선생의 지성 5. 단국인의 지성과 미래
---------------------	---

VI. 한국지성사의 이해 교재 개발에 따른 학술 심포지움

- 일시 : 2023년 1월 6일(금요일) 12:00~17:00.
- 장소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범정관 3층 회의실(온라인 회의 가능)

1부 점심 식사				
12:00~13:30 (90')	점심 식사 및 휴식			
2부 소개 및 인사			사회 : 엄기표(단국대학교)	
13:30~13:40 (10')	개회사		김상엽(단국대학교)	
	각 장별 집필자 및 토론자 소개 및 인사			
3부 심포지움			사회 : 엄기표(단국대학교)	
시 간	장	목 차	집필자	주 토론자
13:40~16:00 (각 주제당 10~20')	제1장	지성사란 무엇인가?	김상엽(단국대)	손태창(단국대)
	제2장	도구의 사용과 사고의 탄생	엄기표(단국대)	이종수(단국대)
	제3장	새로운 사상의 도입과 확산	전덕재(단국대)	강진주(단국대)
	제4장	지성의 심화와 융합	최연식(동국대)	정성권(단국대)
	휴 식			
	제5장	불교 지성의 전개와 변용	김철웅(단국대)	최종석(동덕여대)
	제6장	유교 이념의 정착과 성리학의 수용	이정주(단국대)	조충현(단국대)
	제7장	조선 성리학의 탄생	강문식(송실대)	김진영(단국대)
	제8장	조선 후기의 새로운 학풍	김문식(단국대)	김지영(단국대)
	휴 식			
4부 종합 토론			사회 : 김문식(단국대학교)	
16:00~16:50 (50')	1. 자문위원 자문 (전체 구성과 내용 등)		손태창(단국대) 자문위원 최종석(동덕여대) 자문위원	
	2. 집필 및 토론자 자유 토론			
5부 폐회			엄기표(단국대학교)	
16:50~17:00 (10')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자유교양대학

공통교양 교과목 개발보고 8

『제2외국어교과』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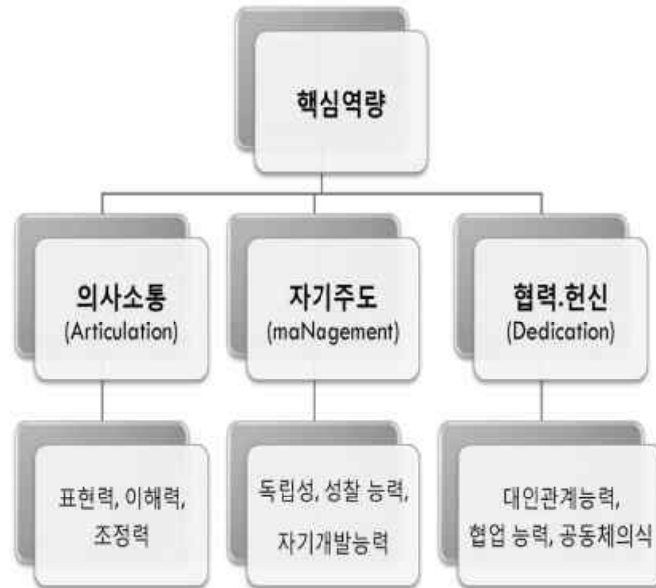
▶ 발표자 : 유영식 교수

제2외국어교과 운영현황 (죽전 및 천안)

제2외국어교과 죽전 ▪ 천안 운영현황

- ▶ 공통교양 중 세계시민 영역
- ▶ 세계시민 영역 목표: 다양한 언어와 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 2021년도 1학기부터 천안 외국어대학 학생들에게만 필수과목(3학점)으로 운영
- * 죽전 캠퍼스 : 공통교양 세계시민 영역 제2외국어 교과목 0학점
- ▶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등 총 10개 외국어과목 운영 중

제2외국어교과 죽전 · 천안 운영현황



제2외국어교과 죽전 운영현황

	2022-1학기	2022-2학기
1	독일어 초급	독일어 초급
2	러시아어 초급	-
3	-	몽골어 초급
4	-	베트남어 초급
5	스페인어 초급 1분반 + 중급 1분반	스페인어 초급 2분반 + 중급 1분반
6	일본어 초급 3분반 + 중급 1분반	일본어 초급 3분반 + 중급 1분반
7	중국어 초급 14분반 + 중급 1분반 *하계 계절 중국어 초급 2분반	중국어 초급 13분반 + 중급 2분반
8	프랑스어 초급	프랑스어 초급
총합	6개 외국어, 26개 분반	7개 외국어, 26개 분반

제2외국어교과 천안 운영현황

	2022-1학기	2022-2학기
1	독일어 초급	독일어 초급
2	러시아어 초급	러시아어 초급
3	몽골어 초급	몽골어 초급 1분반 + 중급 1분반
4	베트남어 초급	베트남어 초급
5	스페인어 초급	스페인어 초급
6	아랍어 중급	아랍어 중급
7	일본어 초급 4분반 + 중급 1분반	일본어 초급 3분반
8	중국어 초급 8분반 + 중급 1분반	중국어 초급 8분반
9	포르투갈어 초급	포르투갈어 초급
10	프랑스어 초급	프랑스어 초급
총합	10개 외국어, 22개 분반	10개 외국어, 20개 분반

제2외국어교과 죽전 운영현황

- ▶ 죽전 캠퍼스내에서 총 6-7개 외국어의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 중
 - * 공통교양 세계시민 영역의 제2외국어 교과목이 0학점인 바,
이를 외국어 영역으로 통합하여 선택적 필수 과목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 죽전캠퍼스의 경우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며,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학습 수요도 점진적 증가 추세
- ▶ 개설 분반 현황 상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교과목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 특히 스페인어의 경우에는 무역학과 개설 '중남미통상학' 연계전공 필수과목임
 - *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의 비전임 비율이 높음

제2외국어교과 천안 운영현황

- ▶ 총 10개 외국어의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어서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여짐
- ▶ 특히 외국어대학이 위치한 천안캠퍼스의 특성상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등 학생들이 학교 외부에서 학습하기 쉽지 않은 과목이 포함되어 있음
- ▶ 개설 분반 현황 상 중국어와 일본어 교과목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음

제2외국어교과 천안 운영현황

- ▶ 외국어대학 학생들에게만 필수과목으로 운영되어 타전공 학생들의 관심이 높지 않음
- ▶ 모든 언어에서 중급 수준의 과목 개설에 어려움이 있음
- ▶ '중급'이라는 용어 자체가 학생들에게 편견을 갖게 할 수 있어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중국어, 베트남어, 아랍어를 제외하고 비전임교원의 담당 비율이 높음

자유교양대학

공통교양 교과목 개발보고 9

『수리추론』 교과목 운영방안

▶ 발표자 : 고희정 교수

수리추론

고희정(자유교양대학)

2024학년도 공통교양 교과목 선정 예상

- 교과목명 : 데이터에 기반한 수리추론

(Quantitative Reasoning based on Data)

- 파일럿 수업 시행

- 일시 : 2023학년도 2학기
- 영역별교양(수학/물리/화학/생물)
- 교과목명 : 수리추론(QR)을 통한 현대생활의 이해

2024학년도 공통교양 교과목 선정 예상

• 교과목의 필요성

- 수치적 분석 또는 수리추론(QR, 양적추론)을 사용해
실생활 문제 해결
- 다시 말하면,
개인 금융, 공중 보건, 사회 정책과 같은 현실적인 질문에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 분석이 필요
-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수리추론 도구를 제공

2024학년도 공통교양 교과목 선정 예상

• 교과목의 목적

- 기초 수학 능력을 활용해 신중하게 추론하고
양적 논증을 할 수 있는 역량 개발
- 학생이 '숫자로 생각하는' 과정에 익숙해지도록
- 학생이 기초 수학 능력을 함양하면서
이를 양적 방식으로 다단계 논증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원스톱 교과목

교재 개발 과정

- 2021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교재 개발 연구
- 교재 개발 연구원 : 고희정 외 6인
- 교재 완성 : 2023. 02.

개발된 교재 목차

1. 수리추론의 개념과 이해

1) 수리추론의 이해

- (1) 추론과 수리추론(QR) (2)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
- (3) 수리추론과 데이터 리터러시

2) 양적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본 개념

- (1) 측정과 데이터 (2) 모델(Model)과 가정
- (3) 페르미 추정

개발된 교재 목차

2. 수리추론을 위한 기초수학

- 1) 수리력 2) 산술 3) 대수 4) 기하 5) 함수
- 6) 확률 7) 통계

개발된 교재 목차

3. 영역별 수리추론

- 1) 투표의 함정; 수학이 필요한 순간 - 정치
- 2) 합리적 의사결정; 게임이론 - 사회 또는 심리
- 3) 빅데이터 분석 실습; 신문기사 분석하기 - 사회 또는 환경
- 4) 통계적 가설 검정 - 수학 또는 기술
- 5) 자동차 보험시장에서의 브랜드 변경 행태 - 경제 또는 사회
- 6) 빅데이터로 만나는 세계 - 문학 또는 문화



[종 합 토 론]

▶ 사 회 :박성만 교수

m e m o

memo